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6>

학승이 물었다.  
"말도 없고 뜻도 없어야 비로소 구(句)를 얻는다는데, 이미 무언(無言)이라면서 또 무슨 구(句)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높아도 위협하지 않고 가득 차도 넘치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지금 화상께서는 가득차고 계시는 것입니까? 넘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자네가 내게 묻는데 어찌겠는가?"

問 無言無意 始稱得句 已是無言 喚什麼作句  
師云 高而不危 滿而不溢  
學云 即今和尚是滿是溢  
師云 爭奈你問我

무언무의(無言無意)해야 일구(一句)를 얻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일상사에서 때면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모두 세속의 이치에 부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 허망한 것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도 절대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을 끊어버리고 저절로 온갖 생각조차 무너져버려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한 생각도 일어나지 말아야 가히 선과 도에 대해 한마디 던져볼 일구(一句)를 얻게 된다.

이 말에는 어제가 있다. 무언무의라고 해놓고 다시 또 일구를 얻는다고 했으니 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무언무의 뒤에 나오는 일구는 좀 높고 가득 차 보여도 위협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무언무의를 거치지 않는 일구는 거칠고 투박한 일구이므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일구라는 것이다.

학인은 "그러면 지금 화상의 말씀은 가득차고 계시는 것입니까? 넘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대해 "그것은 네가 판단해라. 나는 단지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을 뿐이다. 네 대답은 자네를 위협하거나 자네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아" 라는 뜻으로 대답하고 말을 마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신령스러움(靈)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깨끗한 땅 위에 한 무더기 똥을 눈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확실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노승을 뇌란(惱亂)케 하지 마라."

問 如何是靈者  
師云 淨地上屎一堆屎  
學云 請和尚的旨  
師云 莫惱亂老僧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스러움'을 높이 떠받든다. 불교에서는 주로 사리의 영묘함을 선전하고 있고, 타 종교에서는 성모가 눈물을 흘린다거나 성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강조하면서 신령스러움을 높이 부각해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한 무더기 똥을 예쁘게 포장해 사람을 속이는 일밖에 될 것이 없다. 사람들은 새롭고 신비함에 잘 이끌리고 동경해 따르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신령스러움이란 잘 살펴보면 모두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

### 무언무의해야 일구를 얻는다

### 신령스러움이란 보잘 것 없는 것

### 깨닫지 못해도 중생은 원래가 부처

자세히 보면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사람의 눈동자처럼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신령스러운 것도 없다. 자신 속의 신령스러움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되는 것이다. 이참에 적어도 똥을 포장한 것에 제발 이끌리지 말기 바란다.

학승이 질문했다.  
"법신은 무위(無爲)이므로 모든 헤아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래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주 스님은 웃었다.

問 法身無爲 不墮諸數 還許道也無  
師云 作麼生道  
學云 與麼即不道也  
師笑之

법신은 여기서 진법(眞法)으로 보면 될 것이다. 참된 법은 함(爲)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행동을 보인다거나, 한 마디 말이라도 한다면 참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에 대해 뭐라고 한 마디쯤은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학승이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이를 것인가? 참된 법은 무위라고 했는데, 무슨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말인가? 글자 그대로야 절대 말하지 못해" 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낱자들은 깊은 곳을 즉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중생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야."  
학승이 물었다.  
"도대체 누가 중생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물어봐라, 물어봐!"

問 如何是佛 如何是衆生  
師云 衆生即是佛 佛即是衆生  
學云 未審兩箇那箇是衆生  
師云 問問

중생과 부처에 대해 <조주록>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조주 스님은 때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생이 부처'라는 것이다.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니까 '중생이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 이해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중생은 닦으나 안 닦으나,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원래 부처이다. 중생을 놔두고 부처는 따로 없다. 이것 외에는 만년을 지나도록 물어도 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부처와 중생을 구별한다면 스스로 위대한 부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처이고,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실은 알고 모름에 상관없이 중생은 원래부터 부처이다.

<법화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땅자가 스스로 거부장자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거부장자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스스로 거부장자의 아들임을 모를 때도 사실은 거부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러럼 중생은 지금 그대로 부처이다. 이 사실을 알면 된다. 그러면 그대가 부처이다. 더 이상 무엇이 될 것은 없다. 불교는 이처럼 쉽다.

■ 무불선원 선원장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1

### 염불의 의미를 밝히다

달마 대사께서 염불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셨다. "염불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을 닦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대승의 도리를 바르다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사되다 하는데 바른 생각은 반드시 참된 즐거움을 얻겠지만 사된 생각이 어찌 그것을 통달하리오. '불(佛)'은 몸과 마음을 깨우치고 살펴서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념(念)'은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행을 기억해 지니며 잊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니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바른 생각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서 있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니라. 통발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말로 뜻을 얻는데 뜻을 알고 나면 말을 잊어버리듯이 염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하느니라. 만약 생각에 실제(진실한) 것이 없이 마음으로 헛된 명호만 부른다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외운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이름이나 뜻이 천지 차이 이듯이 입에 있으면 외운다 하고 마음에 있으면 생각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라 각행의 문이고, 외우는 것은 입 속에 있는 지라 음성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니라. 상에 집착해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 [원문]

因筌求魚 得魚忘筌 因言得意 得意忘言 既稱念佛之名 須行念佛之體 若念無實體 口誦空名 徒自虛功 有何成益 且如誦之與念 名義懸殊 在口曰誦 在心曰念 故知念從心起 名爲覺行之門 誦在口中 即是音聲之相 執相求福 終無是乎

#### [해설]

대승(大乘)은 큰 수레를 비유한 것이고 소승(小乘)은 작은 수레를 비유한 것입니다. 수레가 크다면 사람을 많이 태울 수가 있습니다.

대승은 우주를 그대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것은 사된 생각입니다.

정진할 때 내가 지장보살님을 찾고 있다면 지장보살 하는 놈이 우주와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일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할 때 큰 도를 얻는 것이니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은 대상을 물집이 아닌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게 똥을 말합니다. 대상을 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행 한 것에 대해 집착이 생기게 돼 그것이 업으로 되기 때문입

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을 할 때에도 마음에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 없이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부처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지심체요절>에 보면 달마 스님의 스승이신 반야다라존자가 공에 초정을 받게 되는데 대중들은 모두 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반야다라 존자는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야다라존자는 "오온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숨을 들이 쉬고 내쉴 때 팔만사천 경전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즉, 팔만사천 경전의 가르침이 하나의 마음자리를 일러 준 것이고, 반야다라 존자는 경전에 나온 참 뜻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만 권의 경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타고 간 배는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達磨坐禪圖 3 · 69x 46cm. 동성 스님 작.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은 염불을 할 때 소리와 형상에 끄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생각으로는 분별하고 있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염불할 때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념으로 염불하며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야지 입으로 헛된 명호만 부른다면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형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형상이 없는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한다면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고 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려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준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중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